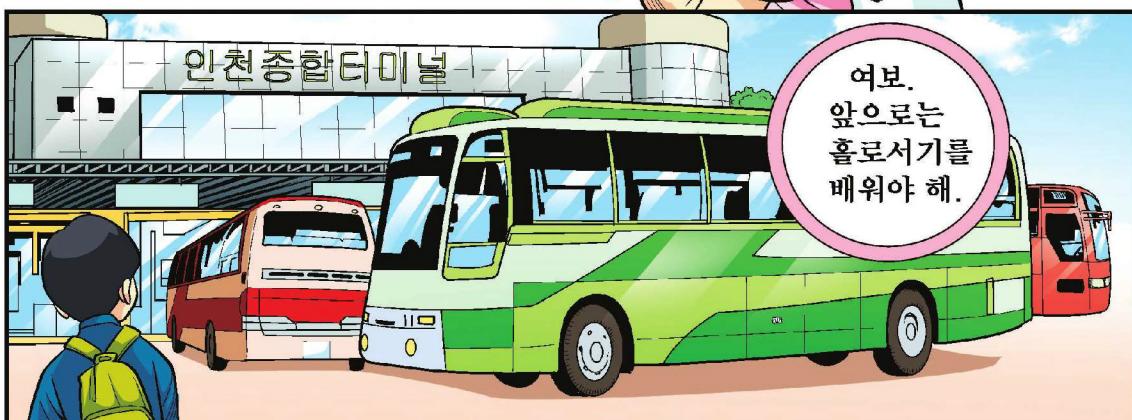


3. 홀로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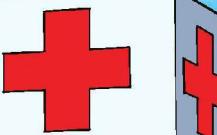






병원 가는 일만큼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.

인천산부인과



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'수어통역 센터'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곤 했지만

통역사의 수가 부족하여 1주일 전에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그마저도 힘들었다.



빈혈약 잊지 말고 꼭 드세요.
인스턴트음식은 되도록
피하시고요. 아셨죠?

다음 분 들어오세요.



첫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
모든 것이 궁금하고 생소했지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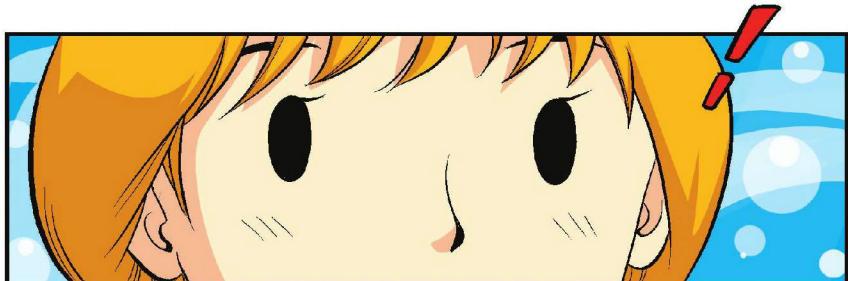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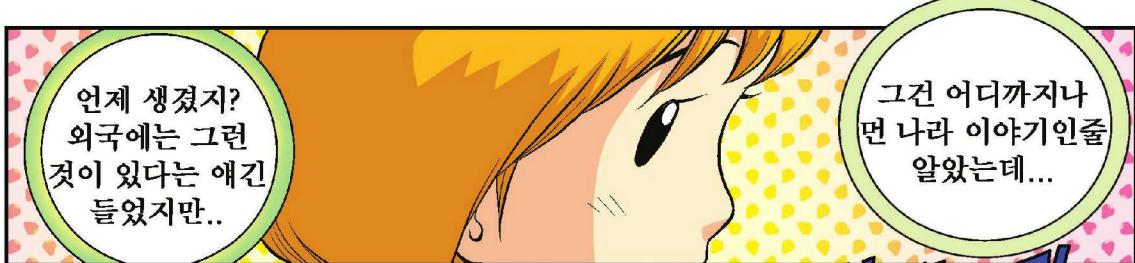
속 시원히 물어볼 상대가
아무도 없었다.

농사를 짓는 부모님은
휴대폰 문자를 못하시고,



늘 바쁜 형제들은 컴퓨터 채팅도
여의치 않았다.





통신증계서비스 + 이용방법 안내

사용방법을
동영상으로
설명해주시니까
아주 쉬워.

음성으로 전달하여 통화상대방의 음성메시지는 중계기가 다시 수화로
청각 및 언어 장애인 이용자에게 수화로 전달합니다.

큰 화면 + 수화 보기

더구나
다년간 채팅
으로 단련된
내가 아닌가.

전화 받으시는 분의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.

다라탁

다라탁

다라탁





